



진안군 마령면,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진안군 마령면(면장 양수현)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농번 기로 접어들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주재 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마령면사무소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마령면 평지리에 위치한 한재준(6,600㎡), 조영열(3,300㎡)씨 등 2농가가 경작하는 고주발을 찾아 고주 유인줄 설치 및 고주순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일손을 지원받은 한재준씨는 “최근 다리 수술로 몸이 불편하여 농작업이 버겁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과 면 직원들이 적기에 고주 유인줄 설치과 순제거 작업을 도와주셔서 한시름 놓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광활면, 해바라기 꽃길 조성

김제시 광활면(면장 정우근)은 지난 28일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과 행정복지센터 인근 3곳의 유휴지에 해바라기 꽃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조성된 해바라기 꽃길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조성하게 되었으며 이날 작업은 유휴농지 주변 잡초와 쓰레기를 정리하고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지역주민 및 광활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재한 해바라기는 오는 7월이면 만개할 예정으로 물주기와 잡초제거 등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 훈련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28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 주제는 공장시설 대형화재로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이며 순창군내 ‘대상공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장 상황을 부여했다. 개인별·기관별 임무수지를 하고 각 기관·단체의 긴밀한 공조 체계화에 신속한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등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원 각 부위별 임무 수행 ▲역할에 따른 훈련과정 수행 ▲가상 상황 전파와 대응 ▲사상자 증증도 분류 및 병원이송 ▲유관기관과의 공조시스템 숙달 ▲강령 및 폐회 등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에서 승마체험하세요’

‘용담승마클럽’ 주말 체험교실 학생·일반인·유소년 등 운영

진안군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진안군 용담에 위치한 용담승마클럽(용담면 대송로 20-30)이다.

지난 2018년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개업한 용담승마클럽은 주말 체험승마교실 운영, 학생승마체험, 일반인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등을 운영하며 진안군 말산업 재번화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승마 관련 인프라가 빠져있던 진안군에 용담승마클럽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초급자들도 부담 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기에 승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 6월에 창단한 유소년 승마단은 창단 이후 각종 승마 대회에 참가해 트로피를 훨씬고 있으며 승마산업 발전에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은 전라북도 말산업 특구 중 한곳으로 지정돼 있어 승마 관련 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용담승마클럽을 기점으로 하여 진안군 말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의산군산축협, ‘고병원성 피해농가 방역물품’ 지원

의산군산축협(심재정 조합장)은 지난 27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전년말에 큰 피해를 입었던 의산시 신홍동에 위치한 오리농장을 방문해 방역활동 전개를 위한 방역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방역물품 지원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AI 확산방지와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지원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방역 소독기, 소독약, 방역복, 비닐장갑 등 농기의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하여 제공했다.

피해농가 김 대표는 “작년 12월에 애지중지하며 사육한 오리 9천수를 모두 살처분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며, “의산군산축협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큰 힘이 됐다”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경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도움 준 금융기관직원 표창

무주경찰서(서장 빙종석)에서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피해예방과 경찰사에 신고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발생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카의 허위체무를 갖으려는 혐의전화에 금융기관을 방문, 통장예금을 출금코자 칭구직원과의 면담 중 평소 통장거래가 없는 것을 의심한 무주군농협 김영이(과장)의 신속한 조치로 전화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어 이에대한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현장에서 지급하였다.

경찰확인 결과 피해자는 조카의 갑금을 이유로 혐박에 두려워 자신이 대신 채무를 갚고자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레터링에 조카이름이 뜨게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카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에 무주군농협 김영이(과장)은 평소 무주경찰서에서 배포한 현장감거능력 향상 보이스피싱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질문하여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사전에 피해예방을 한 사례로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이 더욱 빛이 나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새마을군지회, 밀반찬 나눔·따뜻한 마음 전해

새마을운동진안군지회(회장 이상봉)는 지난 28일 읍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밀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진안읍부녀회(회장 홍화영)가 주축이 되어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닭볶음탕, 장조림 등 정성이 가득 들어간 밀반찬을 만들고 읍내 150여세대에 직접 방문해 나눠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의 안부를 함께 여쭙는 등 따뜻한 마음도 같이 전달했다.

이상봉 회장은 “회원들이 열심히 만든 밀반찬 맛있게 드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은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을 했다.

태권도와 도약센터 앞에서 진행된 이날 헌혈에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헌혈을 통한 고귀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임준구 주임은 “혈액 보유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헌혈에 동참했다”며 “오늘 헌혈을 위해 몇 일 전부터 잠도 끼고 자고 식사도 꽉 하는 등 수혈을 받을 이를 모를 분께 도움이 되고자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간 대별 헌혈 베스 탑승 인원을 편성하는 등 직원 간 거리두기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한 가운데 헌혈을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28일 읍당호 일원에서 각종 수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진안 119구조대원과 수자원공사(용담지사) 직원들이 참여해 수난사고 발생 대비 수난구조조정비 사용법 숙달 및 수난구조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익수자 구조 및 수색방법 숙달, ▲ 수중보트등 수난구조조정비 활용, ▲ 수난사고 요구조사 응급처치 실습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오정철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종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 훈련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